

# “여수~익산 전라선 KTX 고속화 환영”

### 여수상의 “국가철도망계획 포함 지역산업 재도약 마중물 기대”

### “여수사건 특별법 제정 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 조속 추진을”

여수지역 경제단체들이 최근 경제·사회 현안의 해결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수상공회의소(회장 이용규)는 5일 성명을 내고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KTX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포함된 것과 여수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수상의는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어려운 여건에 놓인 지역산업의 재도약에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여수상의는 “익산-여수간 KTX 노선은 2011년 이후 복선 전철화 선로로 KTX가 운행되고 있지만 시속 120km에 불과했다”며 “이제는 서울-여수

간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져 산업, 물류, 관광, 정보교류 등에서 지역 경제회복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여수상의는 광역도시와 비교되는 광역교통망의 부재가 지역 산업 발전에 한계로 이어지는 큰 약점임을 지적하며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망을 보유한 지역이 인구 유입은 물론 기업 유치에 있어 선호도가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익산-여수 간 KTX 고속화, 광주 송정-여수 간 경전선 복선 전철화 사업, 여수공항 국제선 정기 취항 등 광역교통망 확보에 주력해 왔다.

여수상의는 여수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와 관련 “소상공인들과 경제 취약계층이 코로나 정국으로 침체된 생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존폐 기로에 서 있는 엄청난 시국에서 지역시민의 아픈 과거를 치유하고 결속을 다짐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또 “특별법 통과는 국가 경제 측면에서 소모적 논쟁과 불투명성이라는 국가 위협도의 요인을 제거하고, 시민이 화합해 코로나19로 추락한 경제회복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수상의는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여수·순천시민들의 오래된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지역상공인들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 전라선 옛 철길에 ‘도심속 치유공간’ 미세먼지 차단숲

### 여수시 옛 덕양역사 공원에 3ha 숲·190m 산책로 조성

코로나19로 지친 여수시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건강을 지켜줄 치유공간이 전라선 옛 철길에 만들어졌다.

여수시는 옛 덕양역사가 있던 양지바름공원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위한 숲으로 조성됐다고 밝혔다.

덕양 양지바름공원은 전라선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한 도심 속 공원으로 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어 미세먼지에 취약한 곳이었으나, 이번에 새로운 도심 속 치유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탄소중립을 유도하는 그린뉴딜의 핵심 사업으로 국비 15억, 시비 15억 등 30억원을 투입했다. 지난해 8월부터 조성을 시작했으며 3ha의 숲과 190m의 산책로가 들어섰다.

미세먼지 흡착과 흡수 기능이 높은 가시나무, 느



미세먼지 차단숲이 조성된 덕양 양지바름공원. <여수시 제공>

티나무, 애기동백 등 산림청 권장 수목 1만 2834 그루를 식재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였다.

시는 향후 이 곳에 숲과 더불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제9회 아시아 습지 심포지엄’ 순천서 온라인으로 개최

### 9일까지 5일간 매일 2개 세션 11국 35명 습지 보전 활동 발표

순천시와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는 5일부터 9일까지 ‘제9회 아시아 습지 심포지엄(AWS, Asian Wetland Symposium)’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아시아습지심포지엄은 1992년 처음 개최됐으며, 3년 주기로 아시아 지역 습지현안을 다루는 국제회의이다.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심포지엄은 ‘아시아의 목소리: 변화, 과제, 그리고 성공 사례’를 주제로 온라인 플랫폼(Zoom)을 통해 진행된다.

5일 개회식으로 문을 연 심포지엄은 기조강연, 구두 및 포스터 발표세션으로 구성되며 매일 2개의 동시 세션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발표세션은 코로나19가 습지에 끼친 영향, 자연 기반해결책(NbS, Nature-based Solutions)과 생태계기반 접근법을 통한 재해경감관리, 습지 관리와 보전 및 복원, 습지의 현명한 이용 등 총 8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각 세션별 주제에 따라 11개국 35명의 연구 및

습지보전 활동에 대한 발표를 한다. 또 5개국 14명의 발표자가 주제별 연구결과 및 활동결과를 포스터로 공개한다.

온라인 심포지엄은 각국의 다양한 습지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는 2008년 한국에서 개최된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전 세계 4개 람사르지역센터 중 하나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순천만국제정원 안에 자리하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여수세계박람회장에 반려동물 놀이터 개장

여수세계박람회장에 반려동물 놀이공간(사진)이 개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사장 강용주)은 박람회장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놀이공간(펫플레이그라운드)을 개장했다.

이번에 조성된 반려동물 놀이공간은 1200㎡ 정도의 야외시설이다.

반려인구 증가에 따른 건전한 문화공간 제공과 동시에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려동물 놀이공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무료다.

예방접종이 완료된 반려동물만 입장할 수 있으며 사냥거나 15kg을 초과하는 대형 반려동물은 출입할 수 없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관계자는 “여수시민과 함께하는 박람회가 되기 위해 이용객 및 반려동물에게 보다 나은 반려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용자들은 배설물을 직접 치우는 등 이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여수항만공사 항만 교통사고 예방 TF팀 운영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는 항만구역(항만도로, 컨부도로, 배후단지) 내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TF팀을 운영하고 불법 주정차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그동안 항만구역 내 화물차량이나 컨테이너 세시(운송용 차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매년 교통사고(2019년 37건, 2020년 34건, 2021년 6건)가 발생하는 등 교통 혼란이 가중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공사는 불법 주정차 근절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에 있으며 화물연대, 배후단지 입주업체들에게 불법 주정차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예정

이다.

또 교통안전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해 화물차량 기사들과 운송사에게 충분한 계도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특히 광양시, 경찰서, 컨부도 운영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항만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이다.

김선중 여수광양항만공사 부사장(운영본부장)은 “불법 주정차 구역 지정과 위반차량에 대한 과징금 징수 및 견인조치 등 강력한 단속방향을 고려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곡성군 9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권장

곡성군이 곡성군공무원노조와의 협의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군청 민원실과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적용한다.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그 중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휴식이지만 그동안 주민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 민원실 교대근무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많지 않고, 민원 업무 담당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한 후 9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군은 이와 함께 더욱 쉽고 편리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현재 곡성군에는 군청 민원실을 비롯해 각 읍면사무소 12개소에 70종의 제증명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다. 군청 민원실과 곡성읍, 옥곡면, 석곡면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외부에 설치돼 있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나머지 읍면지역을 포함한 8개 면사무소는 사무실 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외부로 이전 설치할 계획이다.

곡성군은 민원 업무 담당자들의 법적 휴무시간 보장이 더욱 친절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초기에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하는 등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